

##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김 기 련\*\*·김 명 희\*\*\*·조 명 옥\*\*\*\*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에서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Han, 2000), 최근 노인학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ong, 2002). 학대받는 노인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불안, 우울,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이 나타나며 일반 노인보다 치매발병률이 높고, 다른 질환의 증가, 기능적 장애, 인지적 기능손상의 악화로 시설에 조기 수용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기 쉬우며 심리적 불안과 공포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Choi & Mayer, 2000; Comijs et al., 1998; Dyer et al., 2000; Lachs et al., 1998). 한국에서의 노인 학대는 90% 이상이 가정에서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은 보다 더 심한 감정적 동요, 실망, 배신감을 경험한다(Ro, 2002). 그러나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효(孝)사상과 가족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는 문화적 흐름 때문에 학대받는 노인은 가해자의 노출을 꺼리며 사회적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를 고발하기는 더욱 어려워 노인학대의 은폐경향은 가정폭력 중 가장

높다(Song, 2002; Yang, 2003). 특히 학대받는 노인이 다른 사람에게 학대상황을 말하는 것은 '가족의 수치(family-shame)'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Moon & Williams, 1993) '속앓이'를 하며 살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모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보다는 부양하며 모시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으므로 학대받는 노인 개인의 입장에서나 정부의 복지 차원에서나 노인들이 가능한 가정에서 거주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책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대받는 노인들의 '속앓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문제해결책과 더불어 노인 학대 예방책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호학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아직까지 학대받는 노인들의 '속앓이'에 대한 간호이론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노인학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대받는 노인들의 경험에 초점을 둔 질적 접근방식으로 학대피해 경험을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 학대라는 사회문제는 학대받는 입장의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저자 E-mail: ki-ryeon@hanmail.net)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6년 3월 22일 심사외리일 2006년 3월 22일 심사완료일 2006년 7월 18일

구는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즉, 대상자의 살아있는 체험을 그대로 파악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학대 받는 노인들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들의 ‘속앓이’ 경험에 대한 본질과학과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 (Omery, 1983)가 제시한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그 의미구조를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간호중재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은 무엇인가? 이다.

## II. 연구방법 및 설계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Giorgi 방법을 적용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구조를 밝히는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B시와 K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눈덩이 표본추출방법(snow ball sampling)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노인대학 담임목사, 보건소 간호사, 양로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참여자를 소개받아 표집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참여자로부터 다시 소개받아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본 연구자에게 참여자를 소개해 준 담당자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지된 노인으로서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이 노인 학대라고 인정한 노인이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6명으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대양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양하게 표집하였으며, 연구의 신뢰성과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녹취한 내용은 바로 필사하였고, 참여자와의 다

음 면담 시에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치매로 인지장애가 있거나 청력이 감퇴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는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03년 5월부터 2003년 9월까지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하여 신뢰감을 먼저 형성하였으며, 참여자가 본 연구자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가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참여자의 경험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하여 정기적인 만남으로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을 형성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노인대학의 사무실, 참여자의 집, 참여자의 딸 집, 음식점, 양노원의 상담실 등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회수는 1인당 3회 정도였고, 1회 면담 시 소요시간은 1시간~2시간가량이였다. 1시간~2시간 분량의 수집된 자료를 필사하는 데는 5시간~6시간이 소요되었고, 필사한 것을 확인하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렸다.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음 면담을 위한 질문을 메모하였다.

면담은 가능한 비구조화된 면담기법을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은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은 무엇일까?”라는 대유클(grand tour) 질문이지만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참여자의 학대경험이 표현되었을 때 “-님이 경험하신 것들이 노인 학대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이 노인 학대라고 인정하였을 때 “학대경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나갔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분석된 내용을 확인하고 더욱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질문이나 대조질문을 이용하였다.

### 4. 연구수행과정에 따른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기 사용을 설명하고, 면담내용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고서에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정보제공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겠으며 연구 후에는 녹음한 테이프와

필사자료를 바로 소멸시켜 정보제공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자료수집 중이라도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준 후, 문자해독이 되지 않는 참여자는 구두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문자해독이 되는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상학적인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Giorgi (1997)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의미구조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의미구조는 '해결되지 않은 가족갈등', '자기중심적 상황인식', '힘의 상실', '밀려남', '힘의 회복을 위한 시도', '학대상황에서 벗어남',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으로 나타났다 <Table 1>.

1) 해결되지 않은 가족갈등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첫 의미구조는 해결되지 않은 가족갈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평생 몸으로 터득한 자신의 생활방식이 자녀와의 세대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서로 갈등이 쌓였고, 배우자와도 젊은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었다. S#1의 경우는 나이 차이

III. 연구 결과

<Table 1> Constituents for subjects' experiences

CONSTITUENTS	S#1	S#2	S#3	S#4	S#5	S#6
Unsolved Family Conflicts	Unmatched conjugal relations	Unhappy in first marriage life, conflicts with children over remarriage	Daily conflicts with daughter-in-law	Conflicts with son over his bad drinking habit	Conflicts with the remarried daughter-in-law	Inherited poverty and responsibility for family support
Egocentric situation -recognition	Doubting wife's whoring	Feeling angry about ungrateful children	Feeling victimized or angry about his or her sacrifice	Feeling sorry or despondent about bad drinking habits of son like husband	Feeling angry about hegemony by the remarried daughter-in-law	Feeling sorry about children's indifference to family support
Being powerless	Losing patriarchic power after assigning retirement grants and property rights	Losing patriarchic power following living together with his remarried woman	Losing his or her own role at home	Impossible in daily life due to disease	Losing the authority of mother-in-law after nominal housing transfer	Living dependently with child family
Being pushed out	Isolated from families	Left alone from children	Backbit, ignored or verbally abused by the eldest son and his wife	Cursed, threatened or violated by son	Treated contemptuously, backbit, cursed or violated by the remarried daughter-in-law	Expelled by daughters-in-law
Attempts for re-powerfulness	Seeking help from relatives	Trying conversation with children at their workplace	Seeking help from children who are not inmates	Seeking help from workers of Life Line	Seeking emotional supports from children who are not inmates	Seeking help from the police
Release from abuse	Spending day time with others outside	Living with his remarried woman	Establishing a branch family with financial support by children who are not inmates	Living alone under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Spending day time with others outside	Referred to free nursing homes
Situation recognition with others' position considered	Feeling pity for wife and responsible for unmarried children	Being remembered as a good parent after death	Seeking the happiness of the whole family	Feeling pity for the undereducated son	Wishing son's happy remarriage life	Feeling pity for children's hard life and daughter-in-law

가 많은 아내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30여 년 전부터 각 방 거처를 하고 있었다. S#2는 불행한 초혼생활 후 아내와 사별하고 지금의 동거녀와 재혼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참여자를 아버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S#3의 경우는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장남만 대학으로 진학시켜 교직에 종사하게 만들었고, 장남손자들을 돌보며 합가하여 살았으나 참여자는 며느리와 손자양육 방식과 일상생활방식의 차이로 고부갈등이 쌓였다. S#4의 경우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후 아들만 데리고 야간도주하여 도피생활로 어려운 생활여건 때문에 아들의 공부를 시킬 수 없었다. 학업을 중단한 아들은 공장을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도박을 즐기며 싸움을 자주 하여 참여자와 갈등이 쌓였다. S#5는 며느리와 사별 한 후 혼자 지내는 아들이 보기가 안쓰러워 재혼을 시켰으나 경제력이 없고 나이차가 많은 아들과 결혼한 재혼며느리는 참여자와 서로 어긋나기만하여 갈등이 누적되었다. S#6은 가난 때문에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고 자녀들은 결혼이후에도 수입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로 참여자의 부양을 거부하였고 서로 갈등이 쌓였다. 참여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원래 본처는 사치가 좀 심했어. 딸하고 항상 미장원가서 머리하고 학교 바람도 많이 일으키고...그래서 본 처와는 관계가 좋지 않았지. 그런데 딸이 내가 옛날 지 엄마(본처)하고는 잘 못 지냈는데 지금 새엄마하고는 잘 지낸다고 나를 미워해.

## 2) 자기중심적 상황인식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키웠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자 자신을 몰라주는 자녀나 가족에 대해 억울하고 분하여 양갈음을 하고 싶어했고 삶의 회의감마저 들었다. 즉 아내의 성적 욕구를 만족 시켜주지 못하는 참여자 S#1은 매일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은 못하였다. S#2는 누구보다도 정성들여 키운 딸이 음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 야속한 생각이 들었고, 온갖 정성을 들여 자식을 키운 것이 억울하고 분했다. S#3은 평생 장남과 장남 손자녀들을 위해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녀가 중학생이 되어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자 자신을 구박하기 시작하는 장남부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고 믿는 도끼

에 발등이 찍힌 생각이 들었다. S#4는 남편의 외도와 주벽이 힘들어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게 살면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도 아들도 성인이 되자 남편을 닮아 주벽이 심하게 되어 아들이 원망스럽고 삶의 의욕이 없어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S#5는 어릴 때 결혼하여 남편과 사별하고 친정 도움으로 자식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재혼해 온 며느리가 참여자에게 하대하고 음해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이 집안에서 자신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 같아 분하고 억울하여 참을 수가 없었다. S#6은 가난하지만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들 모두가 참여자의 부양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내가 열여섯 살에 이 가문에 와 가지고 살았는데 며느리 지는 재처로 들어 온기가 말하자면 재처로 들어 왔다가 나가 가지고 삼년이나 있다가 또 들어와 가지고 저 지랄하니, 구불러 온 돌이 본 돌을 뺀다 하더니 저게 지가 나를 쫓아 널 라고 들어 왔나 싶은게...속에 화가 찬다.

## 3) 힘의 상실

참여자의 경제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체력도 약해져 더 이상 일상생활 유지도 불가능하여 자기 자신을 돌볼 수조차 없는 힘의 상실을 경험 하였다. S#1의 경우 아내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퇴직금과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 변경 해준 뒤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S#2의 경우 지금의 재혼녀와 동거하기 시작하자 자녀들의 왕래가 전혀 없어졌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되었다. 가정에서 손자녀를 양육하며 조부모, 부모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있던 S#3의 경우는 손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S#4의 경우 편모로서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성인이 된 아들은 주벽이 심하였고 체력이 약해진 참여자는 더 이상 아들을 이겨 낼 힘이 없어졌다. S#5의 경우 장남이 상처를 하고 난 후 나이가 많아 경제력이 없어졌고 나이차가 많은 재혼며느리는 살고 있는 집을 자신의 것으로 명의 변경하였고 참여자는 집안에서 부모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S#6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던 참여자는 자신도 자녀에게 줄 재산이 없었고, 자녀가 결혼한 후 합가하여 의존하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었다. 한 남자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가장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가장이다. 집사람이 나보고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가만히 집에서 놀면서 백 만원 줄 테니 그것 가지고 쓰면서 편하게 살라고 하더니...물론 나는 믿고...내가 믿었으니까 다 주었지. 퇴직금도 부동산도 믿고 사업하는데 편하게 해주어야겠다 싶고, 아이들도 한참 돈 들어 갈 때였으니까 다 주었지...그런데 이제 난 주권이 없어.

4) 밀려남

힘을 잃은 참여자들은 가해자인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거나 구박 당하였으며 때로는 음해, 하대 또는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S#1의 경우 아내와 한집에 살면서도 자신의 의식주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자녀들은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아내와 연락을 취할 뿐 참여자와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하지 않아 가족원으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S#2의 경우는 재혼 후 자녀들의 왕래가 전혀 없고 참여자를 전혀 돌보지도 않아 모든 것을 재혼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생활을 하였다. S#3의 경우 손자녀의 양육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직장 생활을 하는 며느리로부터 무시, 음해 당하였고 아들과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S#4의 아들은 술만 취하면 죽이겠다고 참여자를 협박하거나 폭행 하였다. S#5의 경우는 재혼 며느리로부터 음해, 하대 당하였고 참여자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이 감시, 간섭 당하기 시작하였다. S#6은 장남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들 모두 참여자의 부양부담을 거부했으며 결국은 거리로 내쫓기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큰며느리가 나보고 큰 아들집에서 나가라고 그래. 계속 가라고 하는데 사람을 북아 먹으려고 하는데...할 수 없이 작은 아들집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작은애 집으로 갔지.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가 인자 나보고 큰집으로 가라고 그래. 방 내놓는다고 그러면서...며느리가 옷 보따릴 싸주면서 사거리로 끄집어내. 거기서 큰집으로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했어.

5) 힘의 회복을 위한 시도

학대받는 노인들의 힘의 회복을 위한 시도는 참여자 자신이 먼저 가해자와 화해를 시도해보거나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이라

고 느껴져 다른 가족원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경찰서나 생명의 전화 등에 도움을 구하였다. S#1은 참여자의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친척형님이 대신하여 심부름센터를 통해 아내 뒷조사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비용부담이 커서 그만두었다. S#2는 자녀의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자녀는 바쁘다며 참여자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S#3과 S#5는 참여자를 대신하여 비동거 자녀들이 결속하여 장남부부에게 대응하여 참여자가 힘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다. S#4와 S#6은 참여자 자신은 이미 힘이 약하여 가해자에게 대응한다는 것이 불가항력으로 판단되어 생명의 전화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S#6은 경찰서에 찾아가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다. 한 남자 참여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선생님, 내가 십 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딸애 직장에 찾아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친정 아버지인데 나를 본 척도 안 하고 바쁘니까 돌아가라고 해요. 우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를 우째 키웠는데...

6) 학대 상황에서 벗어남

가족들로부터 밀려난 경험을 한 참여자들의 다음 중심 의미는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S#1과 S#5는 지금도 가해자인 가족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가해자와 접촉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낮 시간에는 주로 밖에서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S#2는 자녀들과는 완전히 떨어져 재혼녀에게 의존하여 살고 있다. S#3은 비동거 자녀들의 도움으로 분가를 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S#4는 이웃 주민들과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독거노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S#6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녀들이 전혀 없는 행려 환자로 위장하여 무료양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김치 한번 얻어먹지를 앓았는데...경찰서라고는 예비군 훈련 때 총 받으러 가본 적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발로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여기로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얻어먹는 제주밖에 없다고 시설로 좀 보내 달라고 했어요.

7)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

일곱 번째 학대받는 노인들의 '속앓이' 경험의 의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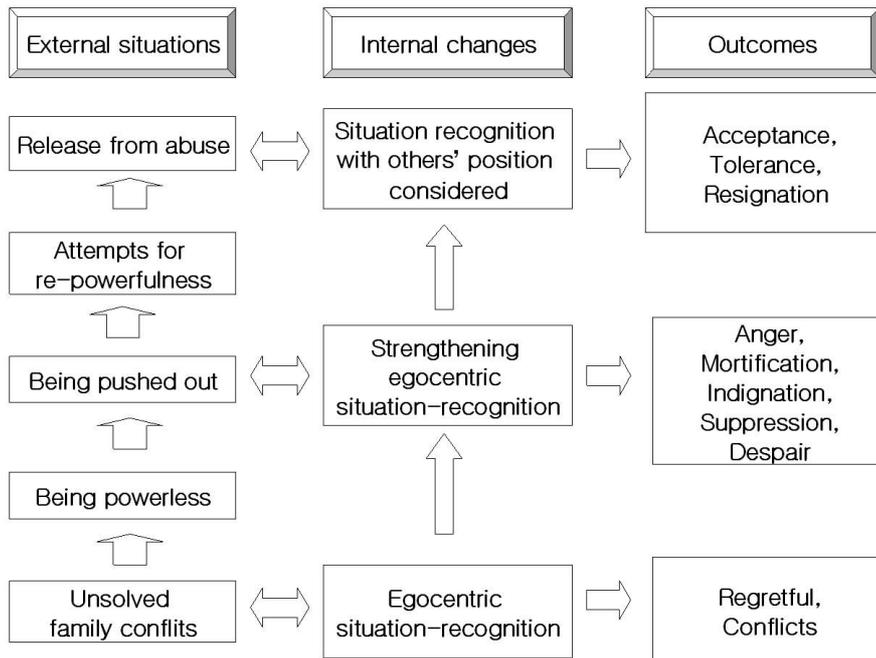
는 진술은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으로 나타났다.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참여자들은 안정을 얻게 되었고 참여자의 생각도 바뀌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가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었고 더불어 현재 자신의 모습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부모로 남고 싶었다. S#1은 아내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다면 당장 이혼이라도 하겠지만 아직은 미혼인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될까봐 고심하며 참고 살고 있다. S#2는 자녀의 직장상사에게 투서라도 보내어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죽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실행하지 못했다. S#3은 자신의 문제로 하여 비 동거 자녀들과 장남 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 소원해지게 될까봐 오히려 비 동거 자녀들에게 장남부부를 이해시키며,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했다. S#4는 지금은 참여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아들이지만 과거에는 효심이 깊었던 아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마음을 다스렸고, 지금의 아들 모습은 자신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다.

S#5와 S#6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자녀의 행복 지켜주기에 의미를 두었고, 이들은 자녀들의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즉 아들내외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신은 무료시설에 남아있기를 원하거나 혼자 살기를 원했다. 한 여성 참여자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며느리도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집이 없이 사니깐 결혼해서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들도 돈도 잘 못 벌지, 그러니까 지도화가 나지...우리 며느리가 영세 받고 했거든. 지금은 냉담 중이지만...내가 항시 우리 며느리 위해서 기도해. 없는 집에 시집와서 지도 고생하고 안됐다 싶고 지 자녀들이라도 잘 키워서 나처럼 안 살았으면 해서...아들하고 며느리 위해 매일 기도해.

## 2.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전체 과정의 맥락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전체 과정에 대한 맥락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러한 과정은 역동적이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



<Figure 1> Interrelated phases and constituents in the overall process containing of the experience of 'Sockalee' of abused elder

## IV. 논 의

### 1.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은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내외적인면이 서로 관련이 있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속앓이'의 정의는 쉽게 풀리지 않는 심한 걱정 또는 속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Choi, 2003). '속앓이'는 참여자 자신이 가해자에게 대응 할 능력이 없어 하는 수없이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심한 속앓이와 참여자 자신의 행복이나 자아보다는 가족 전체의 화목이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약한 속앓이가 있었다. 심한 속앓이는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되는 계속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약한 속앓이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참여자의 속다스리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소멸되는 일시성의 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한 속앓이는 환경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다소 부정적인 반면, 약한 속앓이는 환경에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며 대응적인 차원의 행위라 할 수 있다.

학대받는 노인의 이러한 '속앓이' 현상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밝혀졌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학대를 당할 때 흑인계의 63%와 백인계의 62%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 한국계 노인은 36%에 불과하였다(Moon & Williams, 1993). 또한 Kim(2001)의 연구에서도 학대받는 여성노인들의 47.3%가 학대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당한 남자 노인의 91.5%, 여자 노인의 92.9%가 학대를 신고하지 않았다(Ro, 2002). 물론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속앓이'가 '심한 속앓이'인지, 아니면 '약한 속앓이'인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몰라서'(Ro, 2002), 또는 '고발로 인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학대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Moon & Williams, 1993)이라는 점에서는 심한 속앓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환경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심한 속앓이'를 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는 의존적이고 학대를 받기 쉬운 환경적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인이 자신의 학대문제를 상담하거나 믿고 의뢰 할 수 있도록 치유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아울러 학대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일 수 있다(Ro, 2002). 이러한 '약한 속앓이'는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참여자의 행동반응으로 유교사상, 혈연중심과 정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유교중심, 혈연중심과 정 중심의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한 학대받는 노인들의 '속앓이'는 가정이나 사회 전반적인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학대받는 노인 개인의 측면에서는 억울한 고통을 참고 견뎌냄으로써 부정적인 정서가 누적되어 화병으로 전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학대받는 노인의 부당성(不當性)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여 부정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학대받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지원천 중 친구의 지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Sohn, 2002) 친구들과의 교제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웃주민, 노인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속앓이의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2.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경험의 의미구조

#### 1) 해결되지 않는 가족갈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은 부부, 모녀, 모자, 고부간의 가족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났는데 Han(1996)은 특히 며느리와 융합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나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는 개인적인 성격을 노인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Park(2000)의 연구에서도 노인부양자 집단이 피부양자 집단보다 가족 간의 의견 불일치가 더 높았다. 이처럼 학대받는 노인과 가해자인 가족과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으며 감정적인 대립관계가 축적되어 있다(Cooney & Mortimer, 1995; Reay & Browne, 2001). 그러므로 가족간의 불화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 관념에 입각한 중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자기중심적 상황인식

가족원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참여자들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키웠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자 자신을 몰라주는 자녀나 가

족에 대해 억울하고 분하여 앙갚음을 하고 싶어했고 삶의 회의감마저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상황인식은 가족으로부터 밀려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에게 주 부양자의 경제 상태를 질문한 Yang (2003)의 연구에서 주부양자의 경제상태가 '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모든 학대 유형에서 노인을 더 많이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부양자의 경제상태가 '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의 기대심리에 주 부양자의 행동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노인의 자기중심적 상황인식은 주 부양자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즉 노인의 자기중심적인 경직된 사고(思考)는 가족 문제를 야기하고 노인 학대는 복합적인 가족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 자신이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따른 적응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회상요법, 가족역할 훈련, 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 3) 힘의 상실

참여자들은 재산의 조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하였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지자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들(Choi, Kulick, & Mayer, 1999; Han, 1996; Han, 2000; Song, 2002)에서도 물질이나 재정적인 착취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빼앗기 때문에 노인학대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람(supporter)이 없는 노인이 주로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Heo, 2000). 이처럼 노인의 의존성이 높아 질 경우 가족이 부양부담을 많이 지게 되지만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실히 못한 한국 상황에서는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년퇴직제의 개선과 퇴직연금제의 실시, 그리고 공적부조의 확대실시 등 국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나 우리사회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조기 상속이나 명의 변경 등으로 노인 스스로 경제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밀려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른 가족과의 왕래나 전화사용도 금지당하며, 가해자가 참여자 자신의 방을 뒤흔거나 감시함으로써 세상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가해자가 몽둥이로 때릴 때는 맞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싶어도 도망가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피신할 수도 없었다. 참여자 자신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가족은 오히려 참여자를 쓸모없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빨리 죽어 없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만 같았다. 참여자는 더 이상은 가해자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떤 참여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살아나자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해자에 대한 미운 감정과 함께 분노가 치밀었으며, 가해자를 자신이 당한 꼭 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죽이고 싶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 일반 노인과 비교해 볼 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높고, 섭식장애, 두통, 우울, 불안, 혼란과 분노 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Comijs et al., 1998; Wolf, 2000), 학대받은 노인은 결과적으로 신체, 기능, 심리, 경제적 능력의 감소로 시설에 조기수용 되거나 조기사망에 이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Choi & Mayer, 2000). 그러므로 학대받은 노인들이 위기에 처할 때 신변안전을 위해 쉽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평소에 노인 학대 상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학대받은 노인들의 조기발견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학대받은 노인들을 조기발견하기가 용이하고, 동시에 가해자인 가족의 고충과 가정 환경적인 상황도 파악할 수가 있어 노인 학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도 방문보건사업 운영안내 지침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보호의뢰 대상자 □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학대받은 노인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 내용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방문간호사가 학대받은 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기 발견 및 전문가 집단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방문보건사업 관리지침내용에 학대받은 노인의 관리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4) 힘의 회복을 위한 시도

참여자들은 가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대화로 화해를 시도해보거나, 비 동거 자녀나 친지들에게 하소연하여 이들의 도움으로 힘을 회복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oon과 Williams(1993)의 연구에서도 한국계 노인들은 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인 자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보다는 비공식적인 자원(가족, 친척, 친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55.5%로 이는 흑인계 17.7%, 백인계의 3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인 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학대받는 노인, 가족 및 전문가가 함께 현실적이고 적절한 목표를 세워 그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5) 학대상황에서 벗어남

가해자와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참여자는 분가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독거노인으로 가해자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학대상황에서 벗어난 참여자들은 학대받는 행위가 줄어들자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Kim(2001)의 연구에서도 주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노인학대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의 부양자에게는 노인을 위한 다른 거주 형태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에서 부양이 어려운 경우 즉 분가나 양로원 입소 등의 대안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앞으로 노부모를 모실 여건이 되지 않는 가족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

학대상황에서 벗어난 참여자들의 인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중심적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탐색하면서 가해자 입장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는 가해자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서 가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용서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즉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가족전체를 생각하는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지금 가족으로 부터 당한 고통을 참고 견뎌 먼 훗날 자신이 죽은 다음이라도 자신이 좋은 부모였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기를 원했다. 이러한 현상은 Shin(2006)의 노인의 마음 다스리기 경험연구에서도 “욕심이 없어지고 자식의 복(福)을 바라는 마음이 됨”이나 “순리를 따르기로 함”과 같이 나타났다. 즉 한국 노인들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자식의 성공을 소원하기 때문에 현재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여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식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고 자신은 많이 늙어서 자식에게 도움을 받거나 타인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가족보다는 종교생활에 몰입하면서 가족인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보람되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없이 소외된 학대받는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기적으로 말벗 도우미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거나 경로당, 노인대학, 이웃 등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정서적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 불안 및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경험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6명의 참여자들로부터 면담과 관찰한 자료를 분석하여 ‘속앓이’ 경험의 의미구조를 파악한 결과 ‘해결되지 않은 가족갈등’, ‘자기중심적 상황인식’, ‘힘의 상실’, ‘밀려남’, ‘힘의 회복을 위한 시도’, ‘학대상황에서 벗어남’, ‘타인을 배려한 상황인식’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경험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실무에서 간호사가 노인 학대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및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가 될 것이다. 즉 ‘속앓이’ 현상은 한국 유교문화와 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 법적 차원의 자원을 활용하고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간호학적 적용과 그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받는 노인의 경험에 대한 자료로부터 ‘속앓이’ 경험의 구조를 밝힘으로써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노인 간호 영역에서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학대는 발생하기 전 예방이 최우선 책이며,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갈등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부모-자녀 간, 가족 간의 다양한 역할교육 및 가족 의사소통에 관한 상담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년부터 노후대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되어야 한다.

셋째, 학대받는 노인들은 은폐성이 강하므로 학대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들은 노인과 가족모두에게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대양상을 조기 발견한다.

넷째, 학대받는 노인의 '속앓이' 현상은 한국 유교문화와 효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개인, 가족, 사회, 법적 차원의 자원을 활용하고 대책마련에 앞장선다.

다섯째, 학대받는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방임되어 있는 경우는 이들에게 친구, 종교, 여가생활 등을 통하여 집단의 소속관계를 유지 확보하여 이들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노인 학대 관련 직업인(의사, 간호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사, 경찰 등)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Choi, N. G. & Mayer, J. (2000). Elder abuse, neglect, and exploitation: Risk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J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3*(2), 5-25.
- Choi, N., Kulick, D., & Mayer, J. (1999). Financial exploitation of elders: Analysis of risk factors based on county adult protective services data. *J of Elder Abuse & Neglect, 10* (3/4), 39-62.
- Choi, T. K. (2003). *Yonsei Korean dictionary*. Seoul: Doosan Dong-A.
- Comijs, H. C., Pot, A. M., Smit, J. H., Bouter, L. M., & Jonker, C. (1998). Elder abuser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The J of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6*, 885-888.
- Cooney, C. & Mortimer, A. (1995). Elder abuse and dementia: A Pilot study. *International J of Social Psychiatry, 41*(4), 276-283.
- Dyer, C. B. & Goins, A. M. (2000). The role of the interdisciplinary geriatric assesment in addressing self-neglect of the elderly. *Generations, Sum, 14*(2), 23-27.
- Giorgi, A. (1997). The theory, practice and evaluation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 as a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J of Pheno. Psycho, 28*, 235-260.
- Han, D. H. (1996). *A study of elder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Daegu.
- Han, E. J.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Heo, J. M. (2000). *The elderly problems and elderly welfare of modern society*. Seoul. Hyupshinsa
- Kim, H. J. (2001). *A study on the elderly women's abuse*.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achs, M. S., Williams, C. S., O'Brien, S., Pillemer, K. A., & Charlson, M. E. (1998). The Mortality of elder mistreatment. *JAMA, Aug, 28*(5), 428-432.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3), 386-395.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 178-181.

- Park, B. G. (2000). *Strategies for helping victims and perpetrator by analysing perception of mistreated eld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Reay, A. M. C. & Browne, K. D. (2001). Risk factor characteristics in cares who physically abuse or neglect their elderly dependents. *Aging & Mental Health*, 5(1), 56-62.
- Ro, Y. I. (2002).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research of elder abus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Daegu.
- Shin, K. R., Kim, E. H., & Yang, S. A. (2006). The experience of mind control among elderly in Korea. *J Korean Acad. Adults. Nurs.* 18(1), 41-49.
- Sohn, E. (2002). *A study on how the experience of abuse of old females affects their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ong, Y. M. (2002). *A study on the dependency and abuse of elderly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Wolf, R. (2000). *Special Rese.arch Review Section; Emotional Distress and Elder Abus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 Newsletter, January.
- Yang, K. M. (2003). *A study of the elder abuse in domestic setting, the coping strategies, and the abuse res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Abstract -

## The Experience of the 'Sockalee' of Abused Elders

Kim, Ki Ryeon\*Kim, Myung Hee\*\*

Cho, Myung Ok\*\*\*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essential component and meaning structure of the experience of 'Sockalee' among abused elders. **Method:** This study was done using a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by Giorgi.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ix elders who had the previous experience of 'Sockalee' as abused elders.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the participants from May to September, 2003. Generally, three interviews for one person were performed and each interview lasted for one and half hours. **Results:** The meanings of 'Sockalee' of abused elders were categorized with seven components. Those are (1) Unsolved family conflicts. (2) Being powerless. (3) Being pushed out. (4) Egocentric situation-recognition. (5) Strengthening egocentric situation-recognition (6) Attempts for re-powerfulness. (7) Release from abuse. (8) Situation recognition with others' position considered. **Conclusion:** Therefore, the nursing intervention must be focused on the above concerns to accomplish the successful solution for the abused elderly problems, especially approaching from the standpoint of the whole human.

Key words : Older, Abuse, Phenomenology

\*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